남북경협을 위한 온렌딩대출 활용 방안 모색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 철 희 (saveafrica@kdb.co.kr)

◆ 산업은행, 해외 정책금융기관, 국제금융기구 등은 온렌딩대출을 활용하여 장기·저리의 정책성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

◆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 여건 및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온렌딩대출의 장점을 살린 활용 방안 모색 필요

□ 온렌딩대출은 금융시장과 협업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자금 공급 방식이며, 중개금융기관의 자체선별 및 심사역량 제고로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

○ 중소기업 지원, 혁신성장기업 지원 등과 같이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용이

- 온렌딩대출을 운용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중개금융기관의 영업망과 인력 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대량의 자금공급이 가능

○ 중개금융기관(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)이 대출대상 기업(중소·중견기업)을 선별하여 요청하고, 정책금융기관이 적격 지원요건 심사 후 대출을 실행

□ 산업은행은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저리의 장기자금공급을 목적으로 독일 KfW(재건은행)*를 벤치마킹하여 '09년 국내 최초로 온렌딩대출을 도입**· 운용 중

*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재건을 목적으로 '48년에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금융, 지역개발 및 개인/금융기관 지원, 개발금융, 자본시장 등 4가지 사업영역에서 정책금융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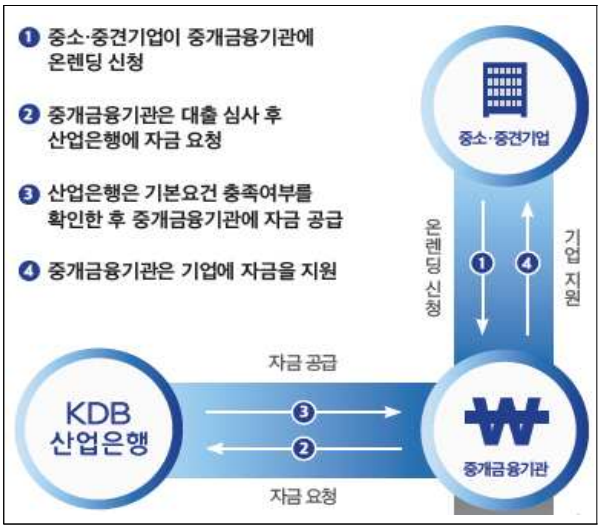
** 한국정책금융공사(KoFC)가 '09. 10월 도입, '15. 1월 산업은행과의 통합으로 업무이관

○ 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은 현재 국내 대표적인 중소·중견기업 정책금융 상품으로 혁신성장 분야 등 정부 중점 추진사업 지원,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자금공급을 통해 차별화된 업무영역 구축

○ 한국정책금융공사(現 산업은행)는 '13. 5월,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애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온렌딩 상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한 바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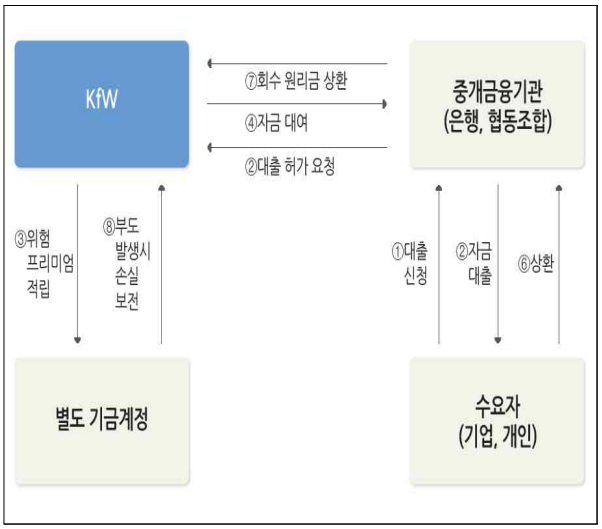
-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전·설비자금 등 지원

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지원절차



자료 :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홍보 리플렛

독일 KfW의 온렌딩대출 업무구조



자료 : 김민관, "통독 관련 KfW의 역할과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", KDB북한개발 2017년 여름호

□ 해외 정책금융기관, 국제금융기구 등도 온렌딩대출을 활용,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과 산업을 지원

○ KfW는 온렌딩대출로 '90년대 통독 이후 동독 재건을 위해 중소기업금융, 주택 및 공공인프라 건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

- 68,000여개 중소기업 지원으로 2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, 동독 주택의 40%인 330만채 아파트 현대화와 10만채 아파트 신축 등을 지원

※ 한용덕, "KfW(독일재건은행)금융그룹의 발전과정과 역할 분석", 산은조사월보 2016년 8월호

○ AIIB(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)*는 '18.9월 AIIB 최초로 터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터키 TSKB** 앞 2억불 규모의 온렌딩대출 승인

* '16.1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지역 경제·사회 발전 및 지역내 연결성과 지역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

** Turkiye Sinai Kalkinma Bankasi(터키산업개발은행), '50년 설립된 터키 최초의 민간 개발·투자은행

- 장기·거액의 자금을 터키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문에 공급함으로써 자금 수요와 공급 사이의 파이낸싱갭 해소 기대

※ AIIB 보도자료('18.9.28자), "AIIB's First On-lending Facility Supports Renewable Energy Project in Turkey"

□ **대규모 자금과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 및 민간 금융기관 참여 유도 필요**

○ 과거 경협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남북협력기금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주로 담당하였으며,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

○ 온렌딩대출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, 중개금융기관의 영업망 및 인력 활용 등이 가능하여 국제금융기구와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유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사업 지원에 적합

□ **대북제재 완화·해제 이후 예상되는 단계별 남북경협사업의 여건과 추진방향 등을 고려한 온렌딩대출 활용 방안 필요**

○ 북-미간 비핵화협상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, 향후 남북경협사업은 개성공단·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점차 북한 및 접경지역의 산업·인프라 개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○ (초기)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사업의 재개시,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특별 온렌딩 지원과 같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온렌딩대출 시행

- 임가공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는 기존 개성공단의 현황을 감안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온렌딩대출의 활용이 가능하며 경협 초기부터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○ (중기) 대북제재 해제 이후 국내외 기업의 북한진출이 확대되는 본격화 단계에는 남북경협, 북한 및 접경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대출 대상 확대

- AIIB 등 온렌딩대출을 기운용 중인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온렌딩대출 프로그램 시행, 북한과 무역 등 거래가 활발한 인접국의 금융기관을 중개금융기관으로 활용 등 검토 가능

○ (장기) 독일 KfW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후 북한 현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온렌딩대출 활용도 고려 가능

- 북한이 최근 지역별로 설립한 함경북도은행, 양강도은행, 평안남도은행 등 상업은행 업무 취급이 가능한 지방은행 네트워크를 중개금융기관으로 활용시 현지 기업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금·리스크 관리 도모 가능